

Magazine

CGN

Spring 2014\_Vol.4



## CGN STORY

2014연중특별캠페인 '시니어·청년' 선교

〈커버스토리〉 이영표 축구해설위원

CGN 스페셜

이슬람 선교를 위한 지피지기(知彼知己)

CGN 뉴스 개국 9주년

현장스케치, 봄 개편 신규프로그램



www.cgntv.net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tel. 02-796-9800 fax. 02-749-6638



# 기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미움도 연민으로 바뀔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뺀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반성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살아온 시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눈도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다.  
내 어리석은 선택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  
그래서 사람이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다.  
앞으로도 분명 나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은 내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않고 감추려는 것,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분명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러나 그런 부족함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기도한다.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 페루에서

---

신미식 |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의 다수

# 꿈을 향한 사다리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켜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봄의 기운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들을 일으킵니다.

지난 2월, 봄을 향한 길목에서 우리의 시선은 온통 소치에 집중됐습니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모습과 성숙한 스포츠 정신을 보며 많은 감동도 느꼈습니다.

36세인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는 올해까지 무려 6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록 끝내 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지만 누구나 그가 보냈을 인고의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간 스케이트가 좋아서 참가했는데 참 행복했다”는 그의 고별인사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김연아 선수는 끝내 석연찮은 은메달에 입을 맞췄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나의 몫은 끝났다. 등수는 심판들의 몫이다”라며 전 세계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준 것처럼 끝까지 빙상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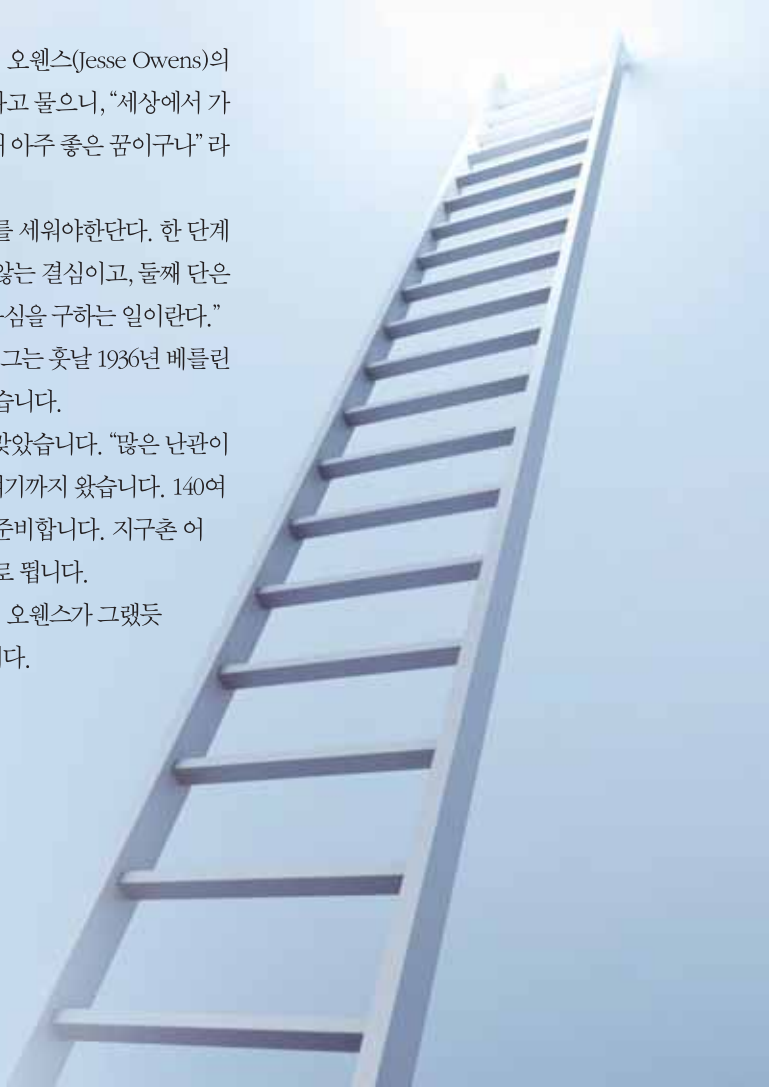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미국이 낳은 유명한 운동선수 제시 오웬스(Jesse Owens)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담임선생님이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으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 아주 좋은 꿈이구나” 라고 그를 격려한 후,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꿈이란 하늘 높이 떠다니는 것이란다. 꿈에 닿으려면 사다리를 세워야한단다. 한 단계씩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렴. 그 첫 번째 단은 변치 않는 결심이고, 둘째 단은 헌신, 세 번째 단은 훈련, 그리고 네 번째 단은 너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다.”

선생님의 이 말은 그가 꿈에 이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훗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딴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순수복음방송으로 출발한 CGNTV가 올해로 어느덧 9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구 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한다”는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40여명 CGNTV 직원들과 수많은 동역자들은 오늘도 24시간 방송을 준비합니다. 지구촌 어디선가 방송을 시청하고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며 기쁨과 보람으로 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꿈” CGNTV는 이 꿈을 향해 제시 오웬스가 그랬듯 오늘도 ‘결심, 헌신, 훈련 그리고 간구’ 4단계의 사다리를 세워갑니다.



포토에세이 | 사진작가 신미식  
프롤로그 | CGNTV 유재건 대표이사

## CGN STORY

**06**  
2014연중특별캠페인 | 시니어 / 청년 선교  
세대별 맞춤 선교 전령으로

**10**  
CGN 인터뷰 | CGN 청춘선교단  
다시 부르심, 청춘선교단으로

## PEOPLE

**14**  
커버스토리 | 이영표 축구해설위원  
아름다운 끝에서 출발

**16**  
선교지의 아침 | 니제르 백형철 선교사  
복음으로 기경하는 니제르

**18**  
CGN 패밀리 |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차세대를 위한 부딪돌이 되길

## PROGRAM

**20**  
현장스케치 |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아딸’ 이경수 대표 편  
착한 성공 이야기

**23**  
CGN 초이스 | 봄 개편 신규프로그램  
2014 선교·교육을 위한 약동

**25**  
시청자 사연

# C O N T E N T S

Spring 2014\_Vol.4



표지 이야기  
2014년 봄, 주의 나라를 위한 CGNTV와 이영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 MISSION

**26**  
CGN 스페셜 | 장훈태 교수  
이슬람 선교를 위한  
지피지기(知彼知己)

## NEWS

**28**  
CGN 뉴스 | 해외지사  
미주, 중문, 일본, 태국, 아랍

**30**  
CGN 뉴스 | 국내  
‘CGNTV 개국 9주년’ 외

**32**  
요일별 편성표

## SUPPORT

**34**  
후원인 인터뷰 | 장은별

**35**  
후원안내

# CGN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4년 3월 22일 (통권 제4호) |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 **발행인** 이재훈 | **대표** 유재건 |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조인애 | **글** 조인애 | **사진** 조대우, 스파지오 |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 꺼지지 않는 불꽃, 이제는 시니어 시대

〈은빛날개〉는 최근 '시니어 선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선교사'는 은퇴를 전후해 인생 후반부를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을 말한다.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 60대가 가장 많고 70대도 많다.

시니어들은 오랫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세대다. 또한 사회적, 지식적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교회 내에서도 시니어 교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회마다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 때에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양분은 시대적 필요에 잘 부합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들로, 선교를 향한 열정과 에너지가 충만한 세대다.

〈은빛날개〉는 그들을 다시 한 번 북돋울 수 있는 불씨를 지피려고 한다. 다소 생소한 시니어 선교의 개념과 시니어들이 공급할 수 있는 시니어 선교에 관한 이모저모를 소개해 선교에 열정이 있는 이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은빛날개〉는 먼저 지난 2월 'CGN청춘선교단'이란 타이틀로 프로그램에 출연할 시니어들을 선발했다. 부부 한 팀

CGN 청춘선교단



을 포함해 총 6팀, 7명이었다. 50대 후반에서 60대로 구성된 이들은 모두 시니어 선교에 대해 막연히 뜻을 품고 있던 이들로, 〈은빛날개〉 출연을 계기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됐다.

〈은빛날개〉는 출연자들이 참여하는 '시니어 선교 이론 강의', '훈련', '지역 현장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일상' 등을 전달한다. 세미나 디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및 숨어 있는 시니어들에게 시니어 선교의 한 모델을 제시하며, 이와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청춘선교단' 모집 공고로 프로그램의 첫 타이프를 끝낸 〈은빛날개〉는 오는 9월 청춘선교단 수료를 계획하고 있다. 지

## 2014 시니어·청년들과 함께 세대별 맞춤 선교 전령으로

2014년 CGNTV는 시니어(Senior) 세대와 청년 선교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고령화 시대에 은퇴가 빨라진 시니어들, 다원화되고 경쟁중심인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한국교회가 더욱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더욱이 시니어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산 역사이고, 청년들은 한국선교를 위한 차세대 주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선교의 주춧돌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에 따라 CGNTV는 2014년 시니어, 청년 전문 선교기관 및 사역자들과 협력해 이를 위한 연중특별캠페인을 벌인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두 세대 선교의 현주소와 실질적인 전략 등을 진단해보고, 시청자들과 선교 현장을 잇는 가교가 되려고 한다. 그 출발선에 있는 첫 프로그램들이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이하 은빛날개)와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이하 RUN)이다.





난 3월 초 첫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은빛날개> 협력 사역 기관 들 및 멘토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주제별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그들이 교육 받는 내용들은 시청자들에게도 소개될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시니어 선교사의 자세와 역할', '선교개론', '다문화로 선교하면 우리가 사는 곳도 땅 끝', '비닐하우스, 자연농법을 통한 선교방법 및 실습' 등 다채롭고 실제적인 내용들로 꾸며졌다.

이러한 강의를 담당하게 될 주요 협력 기관들로는 '시니어선교 한국'을 비롯해, '나섬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다.

시니어선교한국은 현재 직접 지역교회로 찾아가 교육하고 있으며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 사역도 펼치고 있다. 이모작 선교네트워크는 일종의 선교 증개소 사역이다. 시니어 선교사들 마다

삶의 경험과 기술, 전문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선교지와 사역을 소개한다. 남서울은혜교회가 진행하는 'BMR(Business Mission by the Retired Professional)'은 타교인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고, 나섬교회의 '뉴라이프비즈니스쿨'은 교육 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영로교회 시니어선교사 훈련학교'나 '한일장신대학교 전문인 선교 아카데미' 등은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할 시니어 선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출연자들은 이들을 통한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직접 선교현장도 경험한다. 국내 아웃리치나 비즈니스 선교 현장, MK·MP 사역, 선교 유적지 방문 및 해외 아웃리치 현장까지 다양한 사역이 계획돼 있다. <은빛날개>는 오는 4월 2일 첫 선을 보인 후 격주로 방송된다.

### 청년 전도, 소통에서 시작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은 청년 전도를 집중 조명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다. CGNTV는 그간 '북한', '군인', '어린이'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선교 프로그램을 지향해왔다. 대상별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CGNTV는 2014년 시니어선교와 함께 '청년'에 눈을 돌렸다.

청년사역전문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청년 인구수가 급격히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들의 감소폭이 큰 상태다. 대

학생 중 기독교인 비율이 3% 정도(2012년 통계). 또한 기독교에 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거져 전도를 위한 준비 단계, 즉 전도를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다.

전도 또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교회에 어떻게 왔는가?'라는 관계 사역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도방법이었던 찬양집회, 길거리 전도, 전단지 노방전도 등의 비율이 전체 5%에도 못 미쳤다. 대부분 친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전도가 각 교회들의 프로그램 보다 '관계 전도', 즉 전도자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RUN>은 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청년 전도의 해법을 찾아갈 계획이다. 매 회 주제에 따라 독립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계획으로, 주요 주제로 '세상으로 들어가라!', '관계 전도가 답이다', '캠퍼스 전도 포기하지 마라', '오해와 불신에서 대화와 연합으로', '이벤트가 아닌 마음의 소통이 중요하다'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생생한 청년 전도 현장을 조명하고, 멘토단들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클럽 등이 밀집돼 있는 홍대 앞 밤샘 전도 현장, 청년 전도자들이 비기독교인 청년들과 독서 토론이나 봉사활동 등을 점점으로 마음을 열어나가는 현장 등 새로운 전도 풍경이 펼쳐질 계획이다.

<RUN>은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효과적인 청년 사역을 알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제시할 계획이다.

<RUN>과 함께 할 멘토단으로는 (전)OMF 대표 손창남 선교사,

홍대 앞 Way Church 담임 송준기 목사, 주청 프로젝트 대표 겸 음반 제작자 서종현 선교사 등이다. 또한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 선교 한국, 캠퍼스 선교 단체 및 교목실 등도 협력해나간다.

각 멘토단들은 현재까지 다년 간 청년 전도 현장에서 호흡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특히 주청 프로젝트 서종현 선교사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힙합 음악을 해왔던 독특한 이력의 선교사로, 유튜브, SNS 등 여러 방면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상담이 필요한 청년,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조언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소규모 집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RUN>은 오는 4월 4일 첫 방송된다.

한편 CGNTV는 <은빛날개> 방영에 앞서 지난 3월 <시니어 선교,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란 타이틀로 열린 대담을 진행했다. 한국선교협의회(KWMA) 한정국 선교사가 진행을 맡고, 김상복 목사(햇빛트리니티신학교 총장), 이현모 교수(침례교신학대학원 선교학), 최철희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가 동석한 가운데 시니어 선교의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국내외 선교지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뜻 깊은 화두를 던졌다.

이밖에도 CGNTV는 위 사역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특집다큐, 기획보도, 기획행사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SB(Station Break:방송프로 중 나오는 짧은 선전이나 광고)나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사역을 알릴 계획이다.





# 다시 부르심, 청춘선교단으로

〈왼쪽부터〉 최석주(60), 진충호(68), 김상인(66)

시인 사무엘 올만은 그의 시 <청춘>에서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라고 썼다. 또한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이며,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라고 표현했다.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터지는 4월, CGNTV <은빛날개>호가 항해를 시작한다. 여기에 시니어 시대의 개막을 꿈꾸는 7명의 청춘이 올라탔다. 진충호 장로(68), 김정례 권사(67), 김상인 장로(66), 최순애 권사(64), 안효숙 권사(63), 최석주(60), 전미란(58) 부부 집사가 그들이다.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 온 이들은 각자 오랜 세월을 산 자양분을 갖고 인생 후반기, 온전히 선교에 헌신하고 싶다며 <은빛날개>의 문을 두드렸다. 모두 <은빛날개>의 시니어 선교사 모집 공지가 한 눈에 들어왔고, 부르심에 설렘을 느꼈다.

가장 연장자인 진충호 장로는 은퇴 전까지 40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했다. 그는 늘 바쁜 삶을 이유로 전도에 앞장서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은퇴를 하면서 전도 현장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은퇴자 선교학교인 '뉴라이프 비전스쿨' 3기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 후 동대문선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필리핀 단기선교도 처음 나섰는데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가 간 원주민촌은 총 100가구에 1000명이 살고 있는 특히 아이들이 많은 곳이었다. 반평생 가르치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가 다시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들 앞에 선 것은 분명 주님의 부르심이었

다. 20개의 리코더를 들고 간 그는 리코더를 처음 본 현지 아이들에게 리코더 연주를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다.

김정례 권사(67)는 목회자인 아들을 두고 40년 구역 강사를 하며 많은 교역자도 낳았다. 성경을 읽는 것,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물론 노인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봉사도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숙제였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시니어 선교를 작성한 후 기도 중 뜨거운 음성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했다. “너는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다.” 그녀는 이전엔 몰랐던 기쁨을 맛보며 앞으로 이어질 생명을 나누는 삶에 가슴 벅차했다.

김상인 장로(66)는 고(故) 하용조 목사가 시무했던 온누리교회 장로다. 50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 하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김 장로는 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실제 선교 학교에도 지원했지만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아 일정 부분 선교의 짐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케냐로 아웃리치를 가서 70대 초반의 한 선교사를 만났다. 그 선교사는 그에게 “장로시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지에 시니어들을 동원해 달라”며, “젊은 선교사들은 아이와 가족이 있어 주로 도심에 머물기 때문에 시니어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왼쪽부터〉 안효숙(63), 김정례(67), 최순애(64), 전미란(58)



# 청춘

- 사무엘 올만 -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예수이든 열여섯이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인생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 한가운데 무선탑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히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스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여든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이후 김 장로는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에 갔다가 <은빛날개> 공고를 보았다. 그는 새벽기도 중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보내는 이가 될까요? 직접 할까요?”, “새벽 기도 중 목사님께서 선교에 관해 말씀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새벽 기도 중 그런 설교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내용을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설교는 특별히 선교사가 올라와 전했다.

최순애 권사(64)는 남편이 1년 전 신장암으로 먼저 소천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요양차 머물던 치유센터에서 시니어 선교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당시 투병 중이던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시니어 선교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잊혀질리 없던 최 권사는 CGN TV를 시청하다 모집 광고를 보고 번뜩 그 기억이 떠올랐다. 연신 자신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으며 망설였던 그녀는 김치찌개만 끓일 수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나는 아무 것도 몰라서 하게 된 것 같으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데로 섬기겠다”고 고백했다. 또한 “선교하는 분들을 섬겨주고 안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효숙 권사(63)는 남편 박종일 씨와 함께 일생 안경 전도사로 봉사했다. 1999년 안경점을 낸 부부는 늦은 나이에 대입검정고

시에 나란히 합격해 2000년 김천대 안경광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하며 부부는 안경 선교를 다짐했다. 처음에는 고아원 아이들의 시력을 검사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은퇴목회자들을 섬기게 됐는데 여생 책으로 시는 그들에겐 더없이 기쁜 섬김이었다.

이후 부부는 25인승 버스를 ‘달리는 안경원’으로 개조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시력을 측정해 안경을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현재 남편 박종일 장로는 지난 해 9월 소천했다. 그녀의 장남은 목회자로, 딸은 선교사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홀로 걷는 사역의 출발선에 섰다.

최석주(60) 전미란(58) 집사 내외는 유일한 부부지원자다. 생활을 통해 선교하기를 소망했던 아내 전 집사는 꾸준히 교회 큐티 모임 리더로 섬겼다. 그 모습에 은혜가 됐던 남편 최 집사는 은퇴 후 여러모로 그 모임을 격려하는 조력자가 됐다. 부부는 함께 상담심리도 공부하며 더 많은 이들의 귀가 되어주고 조연자가 됐다.

그러던 중 남편 최 집사가 <은빛날개> 모집 공고를 보았다. 이후 최집사는 다소 망설이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썼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 전 집사가 이미 시니어 선교를 결단했던 터라 하나님

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확신했다. 최 집사는 “자신이 베 이비뿔 1세대로 동년배에서 은퇴자만 200만 명”이라며, “그 세대로서 은퇴 후 삶을 바르게 개척하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한 부르심으로 모인 이들, 7명의 청춘선교단은 각자의 마음에 불꽃을 안고 그 불꽃이 또 다른 시니어들에게 이어 붙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 아름다운 끝에서 출발

필드에서 세상으로

지난 해 10월 2013년 미국프로축구(MLS) 최종전의 티켓엔 한국인 선수 이영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은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소속돼 있던 이영표가 콜로라도 라피즈와의 경기를 끝으로 10년 넘는 선수생활을 마치는 날이었다. 이날 경기 전엔 그의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그는 주장 완장을 차고 등장했고, 후반 교체 시간엔 수많은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했다.

그는 경기 중에도 자신이 차기로 돼 있던 패널티킥을 소속팀 까밀로 선수에게 넘겼는데, 골을 넣은 까밀로가 이영표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공을 넘기는 세리머니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영표의 은퇴식은 이후 국내에서도 아름답게 진행됐지만, 다른 국가에서 받은 진심어린 격려는 그와 그를 지켜본 국내외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남겼다.

이영표는 안양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를 시작해 중·고등학교를 거쳐 2000년 프로팀에 입단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본격적으로 축구팬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꿈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가운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우직하게 축구와 함께 했다. 그저 본분에 충실했다. “운동선수에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이런 점들이 그간 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월드컵이나 유럽 리그에서 뛰던 시절 못지않게 축구와 함께했던 초·중·고 모든 시절이 의미있고 값지다. 더욱이 대부분 운동선수의 은퇴가 외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반해 그는 직접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했다. 그는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자”

고백한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하나님을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오랜 신앙의 힘이라 생각됐지만, 그는 프로 입단 후 2001년 처음 신앙을 갖게 됐다. 기독교에 대해 불만이나 의심도 많은 그였지만, 끊임없는 주변의 전도를 계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던 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놀랐다.

“나는 언제나 네 주위에 있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날 볼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울렸고,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월드컵 이후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이적을 앞두고 두 차례 망설였던 적이 있다. 이적을 결정할 땐 팀이 좋으면 쉽게 결정했고, 고사한 팀도 10팀이 넘는 그였지만, 유독 AS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자는 팬층은 팀이었지만 가지 않았고, 후자는 망설인 곳이었지만 입단을 결정했다. 그는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한다. 다만 사우디에 있는 동안 갖게 된 여러 영적 추억을 덧붙였다.

사우디는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 목회자나 선교사, 찬양 사역자 등을 직접 초청해 이슬람권인 그곳에서 은혜롭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그곳에서 CGNIV를 만난 것도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였다. 당시 CGNIV를 통해 말씀을 듣고 큐티도 했던 그는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CGNIV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CGNIV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얼마나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몸소 느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국내 축구 환경 개선을 위해 축구행정가의 꿈을 갖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KBS 축구해설위원으로 임명돼 K리그 및 월드컵 평가전 등을 해설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입국했다. 곧 있을 월드컵 해설도 준비 중이다. 선수 때 못지않은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생활은 축구인이기 앞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늘 그랬듯 지금도 친분 있는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 지체들과 꾸준히 교제를 갖고 있다. 최근 기독교의 움직임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후 자신의 계획들을 놓고 그들의 신앙적 조언을 듣기도 한다.



그는 은퇴 전 2년 동안 미국 MLS에서 뛰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축구 불모지였던 미국 축구가 최근 국민의 인기를 끌며 급성장 한 것을 목도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13세에서 28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에 이어 축구가 2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마음으로 다시 새 길을 꿈꾸고 있다.

그에게 차세대 축구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다. “양동이에 물이 차고 넘치려면 그 양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늘 기본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곧 이영표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

요즘 그의 기도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자”이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다”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축구를 사랑하는 크리스천 이영표의 이후 시간과 행보가 궁금해진다.



# 복음으로 기경하는 니제르

## 무슬림 국가로 찾아 온 CGNTV “맘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이자 영의 샘물”



1

백형철 선교사는 지난 2003년, 20대 후반에 선교사의 길에 들어섰다. 선교지로 볼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각했던 그는 기도 끝에 복음화율이 낮은 니제르를 선교지로 결정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먼 나라. 그는 말씀이 곧 꿈이 됐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내 박여은 선교사와 함께 그곳으로 떠났고, 그 땅을 복음으로 기경하기 시작했다. 니제르 땅에 몸소 밀알이 되고자했던 백 선교사 가족. 어느덧 그 여정은 11년을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 예렘(7), 에셀(3) 두 자녀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CGNTV가 함께 한다.



2. 니제르 현지, 백형철 선교사의 가족 모습. 아내 박여은 선교사와 자녀 예렘(7), 에셀(3).  
2. 사역 중인 '진리 유치원' 방학식 장면. 2010년 한 반으로 시작해 현재 세 반이 되었다. 문맹률이 높은 현지인들을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3



4



5

3. 스포츠볼을 통해 현지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  
4. 제자 훈련 강의 중  
5. 현지에서 CGNTV를 시청하는 모습

백 선교사는 결혼한지 6개월 만에 니제르로 출국했다. 이국의 낯선 환경 자체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이었지만, 낙후된 시설이나 기후 자체도 정착하는데 난관이었다. 병원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정전도 잦았고 심한 더위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한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한 그들에겐 다소 염려되는 여건이었다.

하지만 사역 11년을 보내고 있는 백 선교사는 이곳 생활에 대해 지금은 그런 불편함을 상쇄할 만한 큰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자연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백 선교사 부부도 정착 초기와 달리, 복음을 뿌릴 발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현지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생활이 곧 선교고, 선교가 곧 생활이었다.

CGNTV를 만나게 된 것도 그 여정 속에서 이뤄졌다. 그는 CGNTV에 관해선 이미 지인들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니제르가 위성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연이 닿지 않았다. 이후 그는 한 지인을 통해 니제르에도 위성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누군가의 후원의 손길로 CGNTV와 조우했다.

니제르는 헌법상으로 세속국가(국가가 공식적으로 종교 문제에 관해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다. 하지만 인구의 80%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한국어로 된 설교나 방송을 듣기는 더욱 어렵다. 그에게 CGNTV는 맘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이자 영적 마중물이었다.

백 선교사의 주요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 차세대 리더가

될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일, 초등학교를 세워 문맹률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등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야구를 좋아했던 것에 착안해 스포츠볼을 통한 스포츠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교회개척 사역은 2009년 니제르 니아메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회는 현지인 전도사에게 맡기고, 니아메이 외곽 지역인 아와레라는 시골에 또 다른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웠다.

이 사역들은 니제르를 위한 또 다른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자 하는 꿈에서 비롯됐다. 그는 2007년부터 대학생 전도 사역에 집중했다. 6년 여가 지난 지금은 처음 만났던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 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

최근 그는 2010년 한 반으로 시작했던 '진리유치원'안에 작게 교회 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세 반이 된 유치원과 함께 초등학교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격려하며 복음도 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가난한 현지인들의 자활을 도울 목적으로 천연양계장 프로젝트와 채소밭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이 사역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한다고 고백한다.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현지인 자활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도모하는 백 선교사.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가 먼 타국에서 바라는 가장 큰 기도제목이다. 오늘도 그의 바람은 복음이 확장될 니제르의 내일에 있다.

## 또 한명의 선교사, CGNTV 정상건 운영위원장

# “차세대를 위한 부식돌이 되길”



“시야를 넓히고  
방법을 만들어야  
업그레이드 된다”

CGNTV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그분의 꿈을 위해 뛰는 숨은 가족들이 많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77)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정상건 장로는 지난 해 4월 CGNTV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CGNTV 개국 때부터 운영위원으로 줄곧 CGNTV와 함께 했고, 개국 8주년을 넘어선 지난 해 위원장 직임을 맡게 됐다. 그의 나이 70대 중반을 넘어선 때였다.

그는 직분을 맡은 후, 운영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산업용 공구 생산기업 (주)미진시스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비전을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가는데 익숙했다. CGNTV에 대한 그의 생각과 동선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니어 선교사의 행보가 비쳤다.

그는 1990년대 초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으며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갔다. 먼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전망 있는 사업 분야를 떠올렸고, 이들에 필요한 요소를 놓고 기도하면서 잠금 장치를 위한 공구에 착안하게 됐다. 그의 생각은 ‘현대 자동차가 생겨날 때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이후 그는 2002년 일본과 기술제휴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2005년 산하 회사들의 정예화와 전문화도 이뤄냈다.

그는 “시야를 넓히고 방법을 만들어야 업그레이드 된다”며 “CGNTV 또한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오랜 경륜이 빚어낸 시각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 속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그가 CGNTV 사역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고 하용조 목사의 제안 때문이었다. 당시 하 목사는 위성방송인 CGNTV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그 근간을 세우기 위해 바빴다. 정 장로는 1999년부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던 터라 방송선교에 대한 하 목사의 열정에 남다른 감동을 받았다. 그의 제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하 목사의 유지를 잊을 수 없다.

운영위원장을 제안 받았을 때 재고의 여지없이 이튿날부터 운영위 진행을 맡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운영위에 대한 그의 생각은 명확하고 실질적이다. CGNTV 초창기 하 목사의 생각이

그랬듯 그는 내실 있는 운영위원수를 늘리고 운영위를 공고히 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에게 좋은 정책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열심을 다해야겠구나.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겠구나”하는 것이 운영위를 맡았던 그의 첫 마음이었다.

실제 지난 해 50여 명이었던 운영위원은 현재 80여 명으로 늘었다. 그를 중심으로 운영위는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년엔 크리스천 실업인 등을 주축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500여 명 규모의 회의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사역과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힘 쓸 예정이다. 지난해엔 서울 충신교회를 방문해 많은 성도들에게 CGNTV 사역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연내 운영위원들이 모이면, 회의가 끝난 후 CGNTV 후원 ARS를 누르자고 늘 제안한다. 무엇이든 뇌리에 박히면 하게 된다며 계속해서 부식돌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CGNTV 개국 이래 가까이서 꾸준히 행보를 지켜본 인물이다. 일본 선교를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일본 각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브소나타를 목도했고, 비전트립을 통해 누군가에게 CGNTV 안테나를 달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접점이 되는지 몸소 확인했다.

“선교에 이보다 효과가 빠르고 임팩트 있는 매개체가 없다. 더군다나 다국어로 방송되는 것은 해외 선교지에 대한 큰 사랑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려면 CGNTV는 끝까지 지켜가야 할 사역이다”라고 강조하며, “그것이 지금 자신이 CGNTV에 전무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CGNTV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숨은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일”이라며 격려했다.

현재 그의 기도제목은 먼저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 그리고 CGNTV 사역이 많은 호응을 얻어 CGNTV가 더욱 진보해나가는 것이다. 더불어 장자로서 지손, 형제들이 모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는데, 그 전통이 잘 이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의 기도 중에 있는 CGNTV와 후손들은 가장 먼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인 듯 보였다.

# 착한 성공 이야기

## '아딸'의 CEO 이경수를 만나다

성공한 이들의 스토리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 과정이 무엇보다 진솔한 드라마인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 혹은 필요한 지혜를 짚어볼 수도 있다. CGNTV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는 CGNTV 대표인 유재건 장로와 사회적으로 착한 성공을 이룬 크리스천 CEO들이 만나는 자리다. 올해 들어 유재건 장로가 세 번째로 만난 인물은 '아딸'이라는 분식 프랜차이즈로 친숙한 (주)오투스페이스 이경수 대표였다.



■ 녹화에 앞서, 진행자 유재건 장로와 아딸 이경수 대표

1. 이경수 대표 사무실
2. 하남시에 위치한 아딸 공장. 제작 공정을 살피는 이 대표
3. 아딸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것은 물론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장과 감사패를 받았다.



<크리스천 CEO를...>의 녹화는 매 회 출연자의 기업에서 진행된다. 출연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자 그들의 오늘이 있게 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경수 대표의 녹화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성내동에 있는 (주)오투스페이스 본사 직원 연수실에서 진행됐다. 2000원 메뉴로 시작해서 연 매출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아딸'. 본사는 매출 규모에 비해선 소박했다.

녹화가 진행됐던 직원 연수실은 직원들의 예배 처소이기도 한데, '아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떡볶이, 튀김, 오뎅 등 오늘의 '아딸'을 있게 한 다섯 가지 효자 상품들이었다. 끊임없이 개발 중인 신 메뉴들도 보였다. 다수의 표창을 비롯해 '아딸'이 후원하는 곳의 사진, 후원자들에게 받은 감사패나 편지들까지 '아딸'을 대변하는 역사와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아딸'의 주요 메뉴들은 결정된 사연이 특별하다. 그 일화는 현재 이 대표가 이룬 '착한 성공'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처음 장사에 뛰어든 것은 2000년, 당시 전도사로 사역하던 개척교회의 실정이 어려워진 탓이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시작한 게 금호동 달동네에 떡볶이 집을 내는 것이었다.

당시 인근에 또 다른 분식집이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 없는 메뉴만 하라고 업포를 놓아, 도의를 지켰던 그가 택한 메뉴들이 지금 '아딸'을 있게 한 효자상품들이다.

이 대표는 이를 "은혜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했다. '아딸' 각 지점들이 8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 다섯 메뉴들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데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억되는 이 대표의 그런 숨은 일화들 때문이었다.

10시 반 녹화가 시작됐다. 목회자를 꿈꾸었던 소년이 거대 프

랜차이즈 기업 CEO가 되기까지의 과정엔 수많은 희노애락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녹화 내내 그 순간순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추억했다. 눈을 크게 뜨고, 미소 띤 얼굴로 여러 몸짓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벅찬 은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방송 관계상 이야기가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우려도 있었지만, 진행자 유재건 장로가 노련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녹화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유 장로는 1990년대 초반 SBS가 없던 시절, <KBS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등 양대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진행자다. 그는 “지금은 자신이 전국노래자랑 MC인 송해 씨 다음으로 고령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지만, “그간 쌓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유 장로의 오랜 삶의 자산은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출연자 섭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녹화 당일에도 유 대표는 한창 섭외 중인



4

지인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숨어 있는 훌륭한 분들이 아직 많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 발굴하고 싶다”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녹화는 2시간가량 진행된 후 끝났다. PD가 마지막 컷을 말하기까지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딸'의 성공 스토리를 숨죽여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녹화 후 여기저기서 농담처럼 “아딸 하나 차리고 싶다”는 말이 들렸다. 스태프 중 한 명은 이대 앞에 있던 아딸 1호점을 다녔던 학생이었다며 이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성공을 부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회 곳곳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이 대표. 착한 성공의 주인공인 그는 한창 흥분이었던 그 날, 전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5



6

- 4.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돕기 '만원의 기적' 참가 감사패
- 5. 아딸 가맹점 방문. 가맹점 1000개를 달성한 아딸. 8평 남짓한 각 지점들은 아딸 본사의 교육에 따라 한결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6. MBC 희망2010 나눔캠페인 협약 모습

## 2014 선교·교육을 위한 약동

CGNTV는 2014년 '선교, 교육'을 화두로 알찬 신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새롭게 단장한 <반갑습네다>가 '시즌2'를 시작하고, <휴먼다큐C>는 협합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역동적인 현장을 담았다. 또한 깊이 있는 두 편의 세미나가 성경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소개한다.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 남북 청년들의 통일토크



탈북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북한선교의 길을 살펴봤던 토크쇼 <반갑습네다>가 <반갑습네다 시즌2-통일북소리>(이하 통일북소리)로 다시 찾아왔다. <통일북소리>는 남북 청년들이 출연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북한선교의 길을 모색한다.

편안한 진행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경란 아나운서가 새롭게 진행 마이크를 잡았고, 개그맨 오지현이 패널로 출연해 화기애애한 이야기 자리를 이끌어간다.

또한 시즌1과 달리 매주 새로운 컨셉트와 형식을 선보인다. 매월 1주차는 '탈북 2세대들이 전하는 탈북민들의 진솔한 삶과 이야기', 2, 3주차는 '주제별 고백이 어우러지는 찬양 토크', 4주차는 '남북 대학생들의 주제의' 형태로 한층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선보인다.

**방송시간** 본방: 화요일 오전 9시 40분  
재방: 수요일 오후 2시 10분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 창세기의 이해와 적용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성경공부 시리즈' 저자 송병현 교수를 통해 살아있는 창세기의 메시지와 만난다.

엑스포지멘터리(EXPOSITIMENTARY)는 “해설, 설명”을 뜻하는 'expository'와 “주석”을 뜻하는 'commentary'의 합성어. 원문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이해 방법이다.

CGNTV가 기획세미나로 선보이는 이번 강연은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이 있는 복음주의적 성경 주해와 말씀 적용의 원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3월 10일 시작된 본 강연은 오는 6월 16일까지 13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공개 녹화로 진행된다.

**방송시간** 본방: 월요일 오후 8시 10분  
재방: 토요일 오후 4시 40분

휴먼다큐C <댄싱 위드 GOD - HISPOP 태국 선교기>

## 그를 위한 노래 HISPOP



힙합으로 복음을 전하는 불꽃같은 전도자, CCM그룹 HISPOP.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흥으로 불교국가

인 태국에서 1년 6개월 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류에 발맞춰 힙합으로 태국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길거리 예배, B-BOY 대회, 청소년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휴먼다큐C>는 이러한 그들의 열정적인 현장을 조명해 지구촌 선교지에 새로운 감동과 도전을 전한다. 지난 2월 8일 진행된 대규모 전도 집회 현장도 펼쳐진다.

**방송시간** 본방: 4/5(토) 오전 11시 20분  
재방: 4/8(화) 오후 5시 50분

<창조과학스쿨 - 창조와 복음>

## 창조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갑론을박 되고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 하지만 성경은 첫 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명백히 공표하고 있다. 세미나 <창조와 복음>은 창조 역사에 관한 확고한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진화론의 허구를 짚고 확고한 창조의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국 창조과학회 소속 국내 굴지의 분야별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해, '과학법칙과 창조주', '노아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과 과학' 등 매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의들을 선보인다.

**방송시간** 본방: 목요일 오후 8시 10분  
재방: 토요일 오후 7시 10분

| CGNTV 시청방법 |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 위성TV

위성안테나 설치로 국내외 170여 국에서 24시간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디엠에스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M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NIB 남인도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스마트폰

모바일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은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웹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폰 인터넷 창에 m.cgntv.net 입력)
-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Live 방송 서비스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 팟캐스트를 통한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시, iTunes 앱 실행 → CGNTV 검색)

### 인터넷 www.cgntv.net

인터넷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VOD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저희 가족은 남편의 직장 관계로 일본으로 이주해 살게 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의 생활은 외로웠고, 한국에 비해 자주 교회를 찾아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CGNTV를 알게 됐습니다. "모국어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정말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생명의 삶>을 듣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CGNTV를 켜놓습니다.

주일이면 이곳 교회에 다녀온 후, 다시 CGNTV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CGNTV를 설치한 선교사님들께서 CGNTV 화면이 나오는 순간, 눈물 흘리며 박수치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집회, 세미나, 세계 각국 선교지 소식. 모든 프로그램들이 귀했습니다.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하늘빛향기>는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시청하고,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은 한국 요리에 열광하는 일본 아줌마들에게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CGNTV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제안에 여러 가지 비전도 품어봅니다. 이 씨앗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언젠간 그 열매도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 다시 만난 예배

임연빈 님

재활치료가 필요했던 저는 살고 있던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입원 후 수차례 수술을 받고, 몸은 움직일 수도 없어 외로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병실 TV채널을 돌리다가 CGNTV <젊은이를 위한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조차 갈 수 없던 제겐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늦은 밤, 치료를 다 마치면 피곤한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켜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 예배는 갈급한 내 영혼을 적시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널?'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화면 속 저곳에 갈 수 있도록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겼고, 기도한지 1년 만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화요성령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 날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활치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전동휠체어가 생겨 비교적 거동이 자유롭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영혼의 앓은뱅이였던 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늘 소원하던 예배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세상 밖으로 인도해준 디딤돌

안애경 님

# 이슬람 선교를 위한 지피지기(知彼知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이슬람 국가를 꿈꾸며 독립을 요구하는 테러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충돌의 원인도 양종교간의 갈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장훈태 | 백석대학교 · 선교학 |

## I. 1400년 이슬람교의 탄생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이다. 그는 마흔 살이 되던 해 곧 서기 610년에 신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압달라의 아들 무함마드는 메카에 있는 히라(Hira)산의 한 동굴에 자주 찾아가 명상과 사색에 잠기곤 했다. 무슬림들은 이 날 밤을 라마단 달 곧 “운명 지어진 권능의 밤”이라고 부른다. 무함마드는 그 날 밤 이슬람교의 경전 ‘꾸란(Quran)’의 첫 계시를 받으면서 신의 첫 계시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란(서기 610 - 632년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내려졌다고 믿는 신의 계시다.

이슬람교도들은 꾸란을 믿는다. 꾸란이란 단어는 원래 읽는 것, ‘암송하는 것’을 뜻한다. 무함마드에 의해 전달된 신의 계시는 23년 동안 가브리엘을 통해 그의 입으로 암송돼 이 땅에 전해졌다고 믿는다.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지역에 예언자로서 알라가 직접 인류에게 자신을 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은 꾸란의 초기 계시와 유일신과 최후의 심판(꾸란 4:163)을 믿는다. 무함마드를 따르는 초창기 추종자는 부인 카디자와 사촌동생 알리, 친구 아브 바크르 등 그와 가까운 소수에 불과했다. 지금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인 동시에 무함마드가 가져온 경전(꾸란)이야말로 모세오경, 시편, 예수의 복음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무함마드는 가브리엘을 통해 받은 계시를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연설 내용은 아랍인들에게 생소하고 허망한 것이었다. 특히 내세가 있다는 주장은 사막에서 살아온 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이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설들은 한결같이 아랍사회의 전통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다신교적인 우상숭배 부정, 고리대금, 도박, 음주, 난혼 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랍의 고대 관습을 모두 금지해야만 했다. 이것은 기존의 종교관, 내세관, 사회가치관에 근원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내용이었다. 메카의 주민들과 대상(大商)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무함마드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적 것이였다. 당시 메카는 우상숭배자들의 순례지였다. 메카의 순례 수입금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무함마드가 포교를 시작한지 11년째가 되던 해는 박해가 심했다. 그때 메카 북방 400km나 떨어진 야스립에서 온 순례객들과 622년 6월 순례객들이 알라와 무함마드를 위해 반대자들과 싸울 것을 맹세했다. 이때 약 200여 명의 메카 무슬림들은 고향을 떠나 야스립으로 옮겨가는 이주를 단행했다. 그때가 622년 7월 16일로서 이슬람 ‘신앙공동체 움마(Ummah)’를 건설하는 중요한

원년의 해가 됐다. 그 때 무슬림들은 전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화를 꿈꾸며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다. 첫 전투는 624년 4월(라마단 달)에 치러진 바드르 전투, 625년 3월 우후드 전투, 627년 3월, 칸다끄 전투를 하면서 세력을 넓혀 갔다. 오늘날 이슬람교는 창시자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믿으면서 꾸란에서 유대교, 기독교도 아닌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라고 주장한다(꾸란 3:67).

## II. 이슬람교도의 신앙과 삶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다. 이들은 유대교, 기독교와 함께 3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주장한다. 알라는 창조자, 우주 삼라만상의 주관자, 절대자, 심판자로 믿고 있다.

이슬람교는 언어학적으로 평화, 신학적으로 복종이다. 이슬람교의 사상적 핵심은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여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을 말한다. 평화와 평등은 이슬람의 핵심인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형제애를 특히 강조한다. 이슬람교에서 형제애는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 세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슬람교의 평등관은 상당히 무색해 보인다. 그 이유는 남녀 간의 차이, 주인과 하인의 문화 등이 이를 말해 준다.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에서는 표면적으로 노예도 이슬람교로 개종만 하면 자유민과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랍인들의 마음속에 계층의 존재감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한편 이슬람교의 특징은 중재자, 대속자 없이 신과 신자의 직접 대화를 가르치는 점에서 기독교와 차이가 있다. 이슬람교의 내세관은 현 세상에서의 선악의 경중에 따라 최후의 날 신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응징으로 나뉜다는 내세관을 갖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정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예측된다는 정명(定命)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박, 마약, 고리대금, 술과 돼지고기를 금하고, 할랄(Halal; 꾸란 5:3-4, 이슬람 율법에 의해 도살된 육류)음식만 먹는다. 그리고 무슬림이 좋아하는 색깔은 흰색, 붉은색, 검정색, 초록색인데, 각각의 색은 무슬림의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슬람교의 색은 초록색이다.

그렇다면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 이들의 믿음의 기본은 6신



으로 분류한다. 유일신 알라, 천사들에 대한 믿음, 경전인 꾸란, 예언자들, 내세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 정명에 대한 믿음이 다. 무슬림의 일상에서 신앙적 실천은 다섯 기둥에 있다. 신앙고백(알라를 믿는 것), 하루 다섯 번 기도, 라마단 기간의 단식, 자카트(수입의 2.5%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순례(평생에 1회 메카 순례)등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여섯 가지 종교적 교리 6신(信)과 다섯 가지 종교적 의무를 의미하는 5행(行)은 꾸란에 기재돼 있다. 5행은 이슬람을 떠받치는 실천행위의 다섯 기둥이다. 이들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언어는 아랍어이다. 그들은 아랍어를 신성한 언어로 믿고 있다. 아랍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약 22개국에서 사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나라는 57개국(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OIC)에 인구는 많게는 16억 명, 적게는 13억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구촌 4분의 1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종교로 성장하고 있다. 무슬림이 증가하는 요인은 개종과 출산율이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무슬림 인구는 4배 증가했다. 한국의 무슬림 수도 13만여 명(한국인 3.5만 여명 포함), 전국 이슬람 사원의 수가 12개다. 한국도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이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추세다.

# CGNTV 해외지사 소식

##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CGNTV 2개 해외지사(미주, 일본), 3개 제작센터(중문, 태국, 아랍)는 현지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 센터들은 영적 콘텐츠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각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며 현지 선교 사역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 특히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각 지사·센터에서 보내 온 국가별 선교소식을 전한다.

### 미주 CGNTV

## 북미 위성방송 송출



CGNTV가 미국전역에 송출된다. 미주 CGNTV는 지난 1월 북미 전용 위성인 Galaxy-19를 통해 북미 전역을 위한 채널을 확대했다. 기존에 중남미 위성 Hispasat-1E 통해 방송됐던 영역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

한 미주 전역으로 확대된 것.

이로써 미주CGNTV는 미주 전역에 방송선교를 시행하며 한국과 미주를 잇는 선교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또한 Galaxy-19 위성에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시청 가능한 기독교 방송이 많아 CGNTV를 알리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CGNTV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주 후원인들의 꾸준한 기도와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주CGNTV는 이에 발맞춰 지난 2월 사무실을 이전하고, HD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본 스튜디오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능 좋은 방송시설을 갖췄고 공연과 녹음도 가능하다.

### 중문 CGNTV

## 중화권 가정 회복 비전

중문CGNTV는 지난 2월 한국 은누리교회 대학부의 대만 단기선교 현장과 함께 했다. 단기 선교팀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교회들과 연합하며 이곳 선교사들을 위로했고 대만의 영적상황을 경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밖에 일본 요도바시교회 미네노 목사가 중문 CGNTV를 직접 방문해 이곳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문 CGNTV는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의 가정 회복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 《爸愛媽 愛我愛家(사랑하는 우리집)》를 제작 중이다. 4월 봄 개편을 통해 선보일 이 프로그램은 대만의 4개 가정 사역 단체와 합작으로 제작된다. 가정 회복, 바른 이성 교제, 자녀 양육,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CGNTV

## 일본 주일학교 활성화



일본CGNTV는 2014년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과 이스라엘 사역'에 집중한다. 일본의 주일학교 교육은 다방면으로 열악한 상태다. 일본 전체 교회 중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교육 방법도 미흡한 상태.

이에 따라 일본CGNTV는 상반기 중 지난 3월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기획 좌담회>를 마련했다. 4월에는 주일학교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방영한다.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는 <류모세 선교사의 이스라엘 세미나(4월 17일~18일)>와 스티븐스 에이코 목사의 <살롬! 이스라엘> 등을 방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CGNTV는 개국 8주년을 기념해 특집 다큐멘터리 <주는 토기장이>(50분)를 3개월에 걸쳐 제작했다. 4월 12일 방송예정인 본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도예가의 생생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한다.

### 태국 CGNTV

##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까이



태국CGNTV는 올 상반기 두 편의 신규 프로그램 <Sereal Sai Kai>와 <Do You Know?>를 선보인다. <Sereal Sai Kai>는 매일 5분간 영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쁜 삶에 지쳐있는 태국 크리스천들의 영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Do You Know?>는 현재 태국 사회에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낙태', '이혼', '트랜스젠더' 등의 이슈를 다루며, 무엇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살펴본다. 태국 CGNTV는 본 프로그램들을 통해 삶의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이 모호해져 가는 태국 내 불신자들에게 참된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

### 아랍 CGNTV

## 개국 2주년 감사



아랍 CGNTV는 개국 2주년을 맞아 기념 비전 영상을 제작, 지난 사역들을 돌아봤다. 아랍 CGNTV는 그간 여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아부다비 주변 교회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함께 예배하며 CGNTV 사역을 위해 협력했다. 그 모임은 '블레싱 아랍 집회'로 성장했고, 현재 매일 중동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성령집회로 거듭났다. 최근에는 중동,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약 50여 명을 초대해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다. 본 집회는 참석자들 간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밖에 아랍 CGNTV는 오는 6월 중동 한인교회 및 미디어 사역 선교사들과 협력해 <미디어 미션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 CGNTV 국내소식

## CGNTV 개국 9주년 복음을 땅 끝까지



개국 9주년을 맞은 CGNTV는 2014년 세대별 선교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을 통해 동남아 무슬림 선교에 뛰어든다. 또한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CGNTV 제 2기 선교 헌신자들의 출발을 알린다.

CGNTV가 올 3월 개국 9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5년 3월 29일 지구촌 선교지를 위한 선교교육 위성 방송의 정체성을 품고 걸어 온 시간이 어느 덧 아홉 해가 됐다. 전 세계 선교지에 달린 CGNTV 위성 안테나 수가 6800여 대를 넘어섰고(지난 해 말 기준), 서울 본사를 거점으로 미주, 일본, 대만, 태국, 아랍 지역에 지사와 제작센터를 세워 해당 권역의 방송 영역을 확대하고 현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작을 했다.

9주년을 맞은 올 2014년에 CGNTV 방송선교의 비전은 계속된다. 이에 따라 CGNTV는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별 선교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CGNTV 제 2기 선교 헌신자 선발과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CGNTV는 청년 전도와 시니어선교 활성화를 위해 전문 사역 기관 및 멘토단들을 구성해 연간 캠페인을 펼친다. 특별기획프로그램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 등을 통해 각 세대별 선교현황을 보고하고 직접 선교현장에 뛰어 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개국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사는 CGNTV가 오래 전부터 기도해 온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 이상이 이슬람교인 동남아 대표 무슬림 국가로

심한 복음의 불모지이다. 이를 기념해 CGNTV는 오는 4월, 특집 다큐멘터리 <인도네시아> 및 신규영화 <Letters to God>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CGNTV는 개국 9주년에 발맞춰 지난 1기에 이어 제 2기 선교 헌신자를 선발했다. CGNTV는 3월 28일(금) 오전 8시 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국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2기 선교 헌신자들의 출발을 알린다. 이날 예배는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메시지와 헌신자 간증, 인도네시아 홍보영상, 국내외 인사들의 축하메시지를 담은 9주년 축하영상이 소개된다.

이밖에 CGNTV는 9주년을 맞아 '온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라는 타이틀로 국내 성도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했다. 3월 30일(주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들로 꾸며졌다.

'야의 크로마키 오픈스튜디오'(서빙고)를 통해 선교지 및 CGNTV프로그램 등과 합성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 방송 및 선교지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 CGNTV 중보기도자 모집

CGNTV가 중보기도자를 모집한다. 2006년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CGNTV 중보기도모임은 현재 두 개의 모임으로 나뉘어 매주 금요일, 격주 월요일 각각 온누리교회와 CGNTV 본사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CGNTV의 사역과 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도제목 등을 놓고 기도로 힘을 더해주고 있다. CGNTV 방송 선교 사역에 공감하는 기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75-9304)



### 2기 시청자 모니터단 모집

CGNTV 2기 시청자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방송선교에 관심 있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은 3월 말까지 진행되며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지원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2기 모니터단은 1기에 이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격월 정기 모임과 모니터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CGNTV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참여하게 된다. (문의: 02-3275-9516)



### 유튜브 'CGN NEWS' 채널 오픈

CGNTV는 지난 1월 유튜브 내 'CGN NEWS' 채널을 오픈했다. CGNTV 간판 뉴스인 'CGN투데이'를 비롯해 교계, 인물, 사회, 국제, 미션 등 분야별 뉴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다. '유튜브 앱'을 비롯해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CGN NEWS'를 검색하면 바로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CGNTV 유튜브는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의 클릭수를 기록하고 있다.



### CGNTV 후원 콘서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1부 새벽 찬양팀은 지난 2월 22일 저녁 7시 반 CGNTV 후원을 위한 콘서트 'Grace concert'를 개최했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 콘서트는 새벽예배를 섬기는 챔버 팀의 연주, 찬양, CGNTV 홍보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CGNTV 편성 프로그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05:0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p> <p>06: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p> <p>06:30 생명의 삶</p> <p>06:50 주일예배(생방송-1부)</p> <p>08: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9:00 주일예배(생방송-2부)</p> <p>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1:20 새벽나라</p> <p>11:30 주일예배(생방송-3부)</p>	<p>05:00 새벽기도회(생방송)</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이재훈 목사(온누리)</p> <p>07: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7:30 서정오 목사(동승)</p> <p>08: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lt;창세기&gt;</p> <p>09:00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p> <p>09:40 독수리 5형제</p> <p>10:20 박은조 목사(은혜샘물)</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05:00 새벽기도회(생방송)</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p> <p>07: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7:30 권성수 목사(대구동신)</p> <p>08:10 한눈에 빠져드는 성경읽기</p> <p>09:00 라준석 목사(시드니새순)</p> <p>09: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10:20 유기성 목사(선한목자)</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p>	<p>05:00 새벽기도회(생방송)</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유기성 목사(선한목자)</p> <p>07: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7:30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p> <p>08:10 복음과 삶 컨퍼런스</p> <p>09:00 유진소 목사(ANC온누리)</p> <p>09: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0: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0: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p>	<p>05:00 새벽기도회(생방송)</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영어)</p> <p>07: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7:30 김창근 목사(무학)</p> <p>08:10 창조과학스쿨-창조와복음</p> <p>09:00 김병삼 목사(만나)</p> <p>09:40 총성! 은혜로軍</p> <p>10:20 이찬수 목사(분당우리)</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05:00 새벽기도회(생방송)</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진재혁 목사(지구촌)</p> <p>07: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7:30 김인중 목사(안산동산)</p> <p>08:10 목회사관학교</p> <p>09:00 이기훈 목사(시드니온누리)</p> <p>09:4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5:00 새벽기도회(생방송)</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박은조 목사(은혜샘물)</p> <p>07: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7:30 김지철 목사(할렐루야)</p> <p>08:10 조셉 프린스의 은혜</p> <p>09:00 CGN 비전특강</p> <p>10: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1:20 휴먼다큐 C</p>
<p>13:10 미니콘서트 쉽</p> <p>13:20 어린이예배</p> <p>13:50 주일예배(생방송-4부)</p> <p>15:5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6:00 온누리교회 영어예배</p> <p>17: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7:40 이찬수 목사(분당우리)</p>	<p>12:3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영어)</p> <p>13:30 김형준 목사(동안)</p> <p>14:1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4:50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p> <p>16:40 [컨퍼런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청소년 큐티 새벽나라</p> <p>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12:30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p> <p>13:30 정근두 목사(울산)</p> <p>14:10 독수리 5형제</p> <p>14:50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권혁빈 목사(열반인온누리)</p> <p>16:40 톨리안 차비진의 에베소서강해</p> <p>17:10 예수님이 좋아요</p> <p>17:40 청소년 큐티 새벽나라</p> <p>17:50 휴먼다큐 C</p>	<p>12:30 김지철 목사(소망)</p> <p>13:10 김양재 목사(우리들)</p> <p>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14:50 권준 목사(시애틀형제)</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정현구 목사(서울영동)</p> <p>16:40 힐송컨퍼런스</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청소년 큐티 새벽나라</p> <p>17:5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p>	<p>12:30 이동원 목사(지구촌)</p> <p>13:30 지형은 목사(성락성결회)</p> <p>14:1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4:50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p> <p>16:40 제자<sup>2</sup></p> <p>17:10 예수님이 좋아요</p> <p>17:40 청소년 큐티 새벽나라</p> <p>17:5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12:3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p> <p>13:30 장덕순 목사(이리신광)</p> <p>14:10 총성! 은혜로軍</p> <p>14:50 마크희 목사(뉴욕IN2)</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홍성욱 목사(안양제일)</p> <p>16:40 칩 잉그램의 영적 돌파</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청소년 큐티 새벽나라</p> <p>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2:0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p> <p>12:40 청년전도 프로젝트 RUN</p> <p>13:30 유기성 목사(선한목자)</p> <p>14:10 이찬수 목사(분당우리)</p> <p>14:50 김병삼 목사(만나)</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4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lt;창세기&gt;</p> <p>17:30 김양재 목사(우리들)</p>
<p>18:2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9:00 열린새신자예배(생방송)</p> <p>20: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1:30 한 눈에 빠져드는 성경읽기</p> <p>22:1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p> <p>23:5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0:20 생명의 삶</p>	<p>18:50 이규현 목사(수영로)</p> <p>19:30 총성! 은혜로軍</p> <p>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lt;창세기&gt;</p> <p>21:40 CGN 비전특강</p> <p>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맥스 루케이도의 여호수아 세대</p> <p>00:20 생명의 삶</p>	<p>18:50 진재혁 목사(지구촌)</p> <p>19:3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20:10 한눈에 빠져드는 성경읽기</p> <p>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p> <p>22:4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크레이그 그로헬의 온전하라</p> <p>00:20 생명의 삶</p>	<p>18:50 이재훈 목사(온누리)</p> <p>19:30 독수리 5형제</p> <p>20:10 홈 에듀케이션 세미나</p> <p>21:40 수요목양예배</p> <p>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데이비드 플라트의 래디컬</p> <p>00:20 생명의 삶</p>	<p>18:50 김승욱 목사(할렐루야)</p> <p>19: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20:10 창조과학스쿨-창조와복음</p> <p>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p> <p>22:4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p> <p>19:3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20:10 한국 리더십 학교 세미나</p> <p>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p> <p>22:40 휴먼다큐 C</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p> <p>00:20 생명의 삶</p>	<p>18:3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p> <p>19:10 창조과학스쿨-창조와 복음</p> <p>20:10 미니콘서트 쉽</p> <p>20:20 휴먼다큐 C</p> <p>21:00 유진소 목사(ANC온누리)</p> <p>21: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22:2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23: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23: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0:20 생명의 삶</p>

# 빛이 임했던 청년의 때

후원인 | 장은별 님

CGNTV 정기 후원자 장은별 씨는 언뜻 평범한 29세 여성 청년으로 보인다.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가족이 크리스천인 가족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일상을 살고 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 말씀강해 등을 찾아보며 영의 양식을 채워가는 것,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 온 길과 확연히 다른 비전을 품고 있는 것들에 관해 무던하게도 이야기한다. 마치 씻고 식사하고 자는 일상들처럼 말하는 투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이야기하고 그분을,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한창 자기 자신에 집중하기에도 바쁜 때에 그녀는 CGNTV를 비롯한 여타의 사역 등을 후원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소홀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에는 평범한 직장인의 서너 달치 봉급은 될 금액을 한번에 CGNTV에 쾌척해 관계자들 사이에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그녀가 청년이라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도 컸다.

그녀에게 당시 큰 금액을 후원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 때문인가. 그녀는 이미 지난 일이라며 그 일에 관해 새삼스러워했다. 그녀는 그저 추억을 되짚는 말투로 그때를 간단히 이야기했다.

한창 힘든 일이 있을 후 그녀는 개인적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해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환한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기도 처소는 새벽 기도 때면 온통 캄캄한 곳이라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때 하나님께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별다른 응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CGNTV에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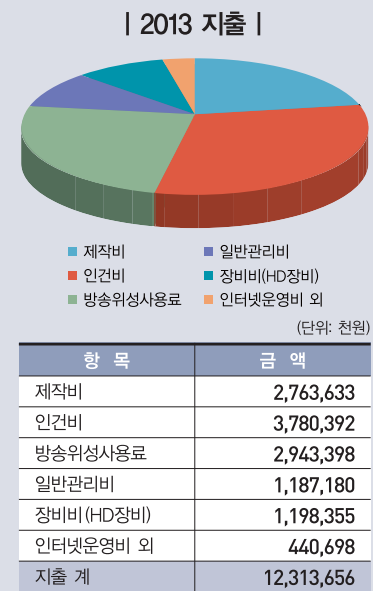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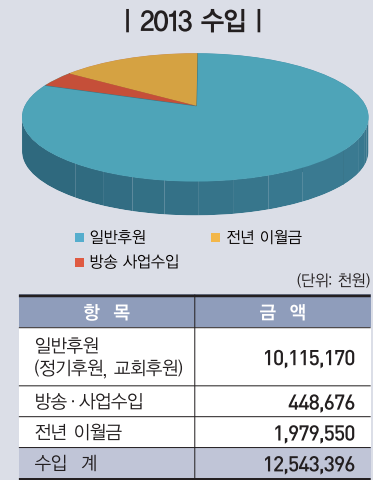
특히 CGNTV를 후원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고(故) 하용조 목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으로 이사하게 됐던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갔던 교회에서 하 목사의 창세기 강해를 처음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후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꾸준히 성장했다. 그녀는 하나님만큼 자신을 이끌어 준 영적 리더를 사랑했고, 그의 뜻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살아생전 그가 가장 품었던 ‘교회와 CGNTV’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주의 나라를 위한 다음 번 후원지도 기도 중인 듯 보였다.

그녀에게 CGNTV를 통해 주로 보고 있는 프로그램도 물었다. 처음처럼 그녀는 화요성령집회, 새벽기도회, 큐티 프로그램 등을 줄줄이 덧붙였다. 퇴근 후 시간에 주로 본다 고 한다.

그녀와 대화를 마치고 나니 문득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녀는 언뜻 평범한 일상을 사는 듯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주의 음성이 생명이자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열정적인 청년이었고, CGNTV를 사랑하고 있었다.

# 후원안내

##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1. CGNTV 방송사역 후원

###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http://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클릭, 정기후원약정서 작성
- (2)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 가능

### 2) 일시후원

- (1)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클릭
- (2) ARS 전화후원 : 060-700-1660 (한 통화에 5천원)

### 후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외환은행 630-004878-302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NH농협 301-0072-3639-01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정기/일시 후원문의 : 02)796-2243

## 2. 드림은 캠페인-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본 후원은 170여 개 나라 선교사님들께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시는 캠페인입니다.

- 1) 인터넷 신청 : <http://give.cgntv.net> '드림은 캠페인' 클릭
- 2)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문의 : T. 82-2-796-1118 / F. 82-2-749-6638

## 3. 기도후원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 1)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2)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세미나실

### CGNTV 실행위원회

김종건(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성 배종수 이광형 이인용

###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성욱 김성진 김영길 김 인 김장렬 김정은 김정훈 김종수 김중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은영 박찬구 박현규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인선 유주희 유철호 유 형 윤덕순 윤원식 윤현진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장수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병균 정영기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훈학 추말자 하성기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상윤